



오늘의 날씨와 생활

3월 5일 목요일 음 1월 17일 (9월)

목요일담론

기상정보

흐림



제주는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9°C, 낮 최고기온은 15°C로 예상된다. 구름이 많다가 아침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내일 오후부터 강풍과 풍랑에 유의해야겠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data: 오전, 강수 확률, 오후, 30% 제주, 30%, 20% 성산, 30%, 30% 고산, 30%, 20% 서귀포, 30%

Table with sunrise/sunset times: 해돋이 06:58, 해질 18:33, 달몰 20:25, 달뜨기 07:39

Table with UV index and mountain safety: 자외선지수 낮음, 산부위험지수 낮음

미세먼지 (PM10)

Table with PM10 forecast: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초미세먼지 (PM2.5)

Table with PM2.5 forecast: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Table with daily weather forecast: 내일, 흐리고 비, 7/13°C, 모레, 맑음, 3/11°C

월드뉴스

日 통일교 2심서도 해산 명령... 청산 절차 시작

통일교 측 "싸움 지속할 것"

일본에서 고액 현금 수령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한 청산 절차가 시작됐다.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연합뉴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도쿄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4일 문부과학성의 가정연합 해산 명령 청구에 대해 해산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변제하는 청산 절차가 개시됐다. 가정연합 측은 판결에 대해 "부당한 사법 판단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특별항고를 포함해 싸움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현재도 가정연합 신자들이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현금 권유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산 명령은 필요하며 부득이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 이후에도 가정연합의 종교상 행위는 금지되지 않고 임의 종교단체로 존속할 수 있다. 또 가정연합이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향후 판결을 뒤집으면 청산 절차가 중단된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연합뉴스

이날 2심 판결로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의 효력이 발생해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교단 재산을 조사·관리하고, 현금 피해자에게 피해를

복합적인 사회 기반이기에.

한리일보 advertisement box containing contact information, website, and subscription details.



송창우 제주와미래연구원장·농부

돌봄은 복지가 아니라 생존전략이다

인간은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돌봄의 역사가 시작됐다. 골반 구조가 바뀌고, 뇌는 커졌다. 반면에 산도는 좁아져 출산은 어려워졌다. 결국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걷는 다른 포유류와는 달리 유난히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난 아이를 오랫동안 함께 돌보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우리는 구조 속에서 인간은 언어를 발전시키고 지식을 축적하며 문명을 이뤘다.

돌봄은 아이에게만 향하지 않았다. 심각한 골절이나 장애를 겪고도 수년간 생존한 인류의 흔적도 있다. 공동체가 그들을 돌보았음을 의미한다. 수렵채집 사회에서 노인은 단순한 비생산 인구가 아니었다. 계절의 흐름과 사냥 경로, 먹을 수 있는 식물과 독성 식물을 구분하는 지식의 저장소였다. 비록 직접 사냥이나 채집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은 아이를 돌보고 지식을 전수함으로써 집단의 생존 확률을 높였다. 오늘 내가 강해도 내일은 다칠 수 있고, 오늘 젊어도 언젠가는 늙는다는 진실을 일찍부터 알았던 것이다. 돌봄은 연민이 아니라 미래 위험에 대비한 상호 의존이었다. 오늘날에도 돌봄은 한국 사회의 생존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 만 3~5세 자녀를 둔 30~40대 가구는 월 평균 110만원 안팎의 양육비를 지출하고, 사교육비를 더하면 140만원 넘는다. 월 소득 400만~500만원 가구라면 전체 소득의 20~30%를 아이에게 쓰고 있다. 50~60대 가구가 노인을 부양할 때 장기 요양에 따른 본인 부담만 월 50만~7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서 사적 간병비를 포함하면 수백만원까지 증가한다. 아이와 노인 돌봄은 가계를 압박한다.

생존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 만 3~5세 자녀를 둔 30~40대 가구는 월 평균 110만원 안팎의 양육비를 지출하고, 사교육비를 더하면 140만원 넘는다. 월 소득 400만~500만원 가구라면 전체 소득의 20~30%를 아이에게 쓰고 있다. 50~60대 가구가 노인을 부양할 때 장기 요양에 따른 본인 부담만 월 50만~7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서 사적 간병비를 포함하면 수백만원까지 증가한다. 아이와 노인 돌봄은 가계를 압박한다.

제주라는 섬은 이러한 사실을 오래전부터 터득해 왔다. 거센 바람과 깊은 물살 속에서 해녀는 홀로 물질을 하지 않았다. 불턱에서 몸을 녹이며 서로의 숨을 살피고, 연로한 해녀는 물에 들지 않아도 불턱과 물의 흐름을 가르쳤다. 공동체는 젊은 노동력으로 유지되지 않

열린마당

흙을 살리는 일이 곧 나라를 살리는 일



김학수 농협구미교육원장

3월 11일은 '흙의 날'이다. 2015년 유엔이 '세계 토양의 해'를 선포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흙의 공익적 기능과 환경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흙의 날이 3월 11일로 제정된 이유가 있다. '3'은 3월은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달로 하늘(天)+땅(土)+사람(人)의 3원과 농업·농촌·농민의 3농을 뜻한다. '11'은 흙을 의미하는 한자(土, 흙토)를 풀면 십(十)과 일(一)이기 때문이다. 흙은 단순한 경작의 대상이 아니

월급의 책임감



이형희 서귀포시 산지경영팀장

어느 날 스쳐 지나가던 기사 한 줄이 마음에 걸렸다. "리더의 월급에는 책임감이 들어 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멈춰섰다. 내 월급에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책임감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책임감은 과연 얼마일까. 크게 말하면 내가 보내는 하루가 시민들의 시간과 연결돼 있으니 그 값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작게 말해도, 함께 일하는 팀원들의 시간과 역량, 그리고 그들이 쏟는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아야 할 몫이 내게 있다는 것이다.

위 기사를 인용하자면, 책임을 지는 리더가 많은 조직은 실수에서 빨리 배우고, 그 실수를 자산으로 바꾼다. 반대로 자원을 쓰고도 책임의 고리를 끊는 리더는 조직의 신뢰를 허물고, 결국 조직의 동력을 약하게 만든다.

감사 또한 마찬가지다. 감사는 누군가를 벌주는 데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잘못된 원인을 찾아 반목을 막고 제도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어야 한다. 한 사람의 징계로 끝나는 감사보다, 조직이 배우고 개선하는 감사가 더 중요하다. 결국 책임은 처벌보다 학습에 가까워야 한다.

"일한 만큼 받는다"는 말과 "받은 만큼 그 몫을 다해야 한다"는 말은 비슷해 보어도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 앞의 말이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면, 뒤의 말은 맡은 자리의 무게를 돌아보게 한다. 어쩌면 우리가 매달 받는 것은 돈만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킬 각오인지도 모른다.

Advertisement for TIEN Information Technology (TIEN정보기술(주)) featuring services like VOICE & 영상장비, NETWORK 설비, and ONE-STOP SYSTEM.

Advertisement for 씨니트묘목분양 (Ciniit Seedling Distribution) listing various plant typ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감굴묘목 (Ganggul Seedling) listing plant types like 유라조생, 천혜향, 궁천,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감굴 신제품 분양 (Ganggul New Product Distribution) listing plant types and contact information.